마을·주민 연대로 전남 '작은 학교' 살린다

도교육청 중장기 계획 시행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등
특성 맞는 학교 모델 발굴
연구·정책수립 지원단도 구성

전체학생 수 60명 이하의 농산어촌 '작은학교'를 살리기 위한 전남도교육청의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마을과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작은학교'를 목표로 내세운 이번 프로젝트가 농어촌 인구·출산율 감소라는 이중고를 맞아 존폐 기로에 선 전남 작은학교에 활기를 불어넣을 지 주목된다.

전남도교육청은 3개월에 걸친 연구·준비작업을 마치고 '작은학교 살리기 중장기 계획'을 수립, 새 학기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이 계획서에는 추진배경과 목적, 현황, 분석, 추진 방향과 과제 등이 담겼지만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은 '학교가 사라지면 마을이 사라진다', '학교는 사회적 자본, 마을과의 강력한 연대로 해법을 찾는다', '작은학교만의 강점을 살린 특색 있는 교육과정 등을 개발해 모델을 만든 후 육성·확산시킨다'로 요약된다.

전남교육청의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은 이전에도 진행됐지만, 이번에 내놓은 중장기계획은 이전보다 한층 절박감이 엿보인다. 당장 투입된 예산만 보더라도 지난 2017년 15억원, 2018년 23억원이던 것이 올해에는 37억원으로 전년 대비 61% 증액됐다.

예산은 크게 작은학교 교육력제고나 교육환경 개선, 학교와 연계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지원, 전남형미래학교 개발·추진 등 3가지 부문에 쓰인다. 전남교육청은 우선 향후 3년 안에 전남지역 특성에 맞는 작은학교 모델 발굴에 힘을 쏟기로 했다. 3년간 총 9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해남교육지원청 주관하에 전남에서 적용가능한 작은학교 모델을 만들고, 학교 단위에서도 적합한 모델을 발굴하기로 했다.

교육청에 작은학교를 살리기 위한 연구·정책수립·지원 등을 위한 지원단도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간다. 학교는 사회적자본, 공동체 자산이라는 인식 아래 학교와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복합 시설 구축, 교육 협동조합 운영, 전남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주민과 학교가 공동으로 돌봄교실를 운영하거나 지역민 강사를 육성하고 공동으로 매점을 운영하는 식으로 주민 참여를 늘려 결국에는 배움의 터를 학교에서 마을 전체로 넓혀간다는 구상이다.

전남에는 학생수 60명 이하의 '작은 학교'가 지난해 10월 기준, 전체학교 887개 초·중·고교(분교 포함) 가운데 374곳(42.2%)에 달한다.

전남 초·중·고교 학생 수는 2000년 34만1000여명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19만9000여명으로 급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빨간불 켜진 사랑의 온도탑 8일 오후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의 '사랑의 온도탑'이 70도에도 못미쳐 목표액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난달 20일 모금을 시작한 희망 2019캠페인은 오는 31일까지 53억4900만원 모금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

"학교운영위 학생 참여 의무화 해 달라"
고교 1학년생 초중등교육법 개정 청원

광주 운남고 이수영 양

학생을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가시켜달라는 고교생의 목소리가 나왔다.

학생이 학교의 주인이자 존립 근거이면서도 정책 결정에서는 배제된 지금의 상황을 지적하며,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광주 운남고 1학년 이수영 양은 지난해 12월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학교 운영위원회의 학생 참여 의무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청원했다. 8일 오후 현재 220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이양은 국민신문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이양은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학교 운영에 관심을 갖게 돼 친구들과 함께 이런저런 목소리를 냈지만, 학생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학교에 관한 '근원적인 문제'를 품게 됐다. 학교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학교 운영위원회에 정작 학생은 참여가 배제됐다는 사실이다.

초·중등교육법 31조에서 국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 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양은 해당 조항에 학생 대표를 추가해 학생이 운영위원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양은 청원 글에서 "지자체와 단위 학교마다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규정했지만, 명시된 내용이 불분명해 학생의 학교 운영 참여권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이는 교육의 세 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의 의견을 모두 수렴해야 하는 민주적인 운영 원리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목포 화재 피해 상가 생계·철거비 등 지원

전남도 경영안정자금 융자도

전남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7일 화재 피해를 입은 목포시 산정동 먹자골목 상가 상인들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7일 화재가 발생해 피해를 입은 목포시 산정동 먹자골목 상인들이 신속하게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생계지원금과 철거비, 경영안정자금 융자, 임시 판매시설 설치 운영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생계지원금은 영업활동이 중단돼 생활이 어려워진 상인들을 위해 피해 세대당 생계지원금 2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신속한 영업재개를 위해 화재 잔존물 처리비용도 목포시와 전남도가 50%씩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설 명절 대목을 앞둔 만큼 화재현장 인근 신 중앙시장 주차장에 임시 판매시설을 설치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업 재개에 필요한 경영안정자금도 전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저리 1.2%의 이자로 3000만원 정도의 융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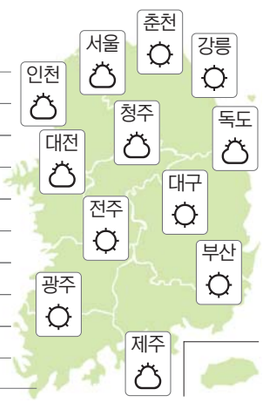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뜸	07:41	달뜸	09:44
해짐	17:37	달짐	20:29

감기 조심하세요

일교차 크고 바람도 강해 매우 춥겠다.

광 주	맑음	-5/5	보 성	맑음	-7/5
목 포	맑음	-4/3	순 천	맑음	-4/7
여 수	맑음	-2/5	영 광	맑음	-7/2
나 주	맑음	-7/3	진 도	맑음	-4/3
완 도	맑음	-2/5	전 주	맑음	-7/2
구 례	맑음	-7/5	군 산	맑음	-6/1
강 진	맑음	-4/5	남 원	맑음	-8/4
해 남	맑음	-6/3	흑산도	맑음	2/3
장 성	맑음	-8/3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북서~북	1.0~2.5	북~북동	0.5~1.5
	먼바다	북서~북	2.0~3.0	북~북동	1.0~2.5
남해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5	북서~북	0.5~1.0
	먼바다(동)	북서~북	1.0~2.5	북서~북	0.5~1.5
	먼바다(서)	북~북동	2.0~4.0	북~북동	1.5~3.0

◇생활지수

뇌졸중	매우 높음
감기	매우 높음
미세먼지	보통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9:07	03:43
	21:46	16:27
여수	04:34	11:11
	17:17	23:08

◇주간 날씨

10(목)	11(금)	12(토)	13(일)	14(월)	15(화)	16(수)
-3/6	-2/7	0/6	-1/7	-1/6	-2/5	-3/5

국립공원관리공단, 30년 만에 명칭 변경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칭이 '국립공원공단'으로 변경된다.

이는 기존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명칭에서 소극적·규제적 의미를 가진 '관리' 용어를 삭제해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공단 업무 수행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8일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1987년 설립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의 보전 및 탐방, 공원시설의 설치·유지 등의 업무를 맡아왔다. 무등산·지리산 등 전국 22개 국립공원 중 한라산 국립공원을 제외한 21개 국립공원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29개의 국립공원사무소를 두고 있다.

국립공원공단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공단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자원봉사활동의 기반 조성 및 지원사업'을 추가해 국립공원의 보전·관리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자원봉사 활동 참여를 이끌 수 있도록 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영산강환경청, 환경지킴이 37명 22일까지 모집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영산강·섬진강의 수질보전 감시활동을 위해 2019년 환경지킴이 37명을 채용한다.

모집 기간은 9일부터 22일까지로, 영산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me.go.kr/ysg) 또는 정부지원일자리 홈페이지 워크넷(work.go.kr)에 공고할 계획이다.

선발된 환경지킴이는 주 5일(하루 8시간) 근무로 영산강·섬진강유역의 환경오염행위 감시·계도, 하천변 정화활동, 지역주민 교육·홍보등 다양한 환경보전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급여는 1일 6만6800원(식비 등 1만3000원 별도 지급)이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